내 감정을 넘어 구름 위 하늘로

(신명기 25:1~19)

1.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2.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오늘 신명기 25장 전체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넘어 구름 위 하늘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 감정을 넘어서 구름 위 하늘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나는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개의치 않는다. 다만 내 감정에 충실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감정에 충실 하라'는 얘기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어느 책에 "나의 감정에 충실할 때 꿈이 시작된다."고 하고 심지어 감정과 직관을 혼용하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항상 옳습니다."라고 까지 말을 하는데 참 위험한 얘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전 소설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Erich Maria Remarque)의 "살 때와 죽을 때"라는 원작소설이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제목의 영화로 1950년대 말에 상영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의 비극 속에서 피어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영화로 전쟁의 폭력과 불신이 지배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서 어떤 강렬한 삶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주제 말고,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영화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냇물에 떠내려 오는 꽃을 보고 다가가서 꽃을 건져내다가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답니다.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껴서 그 심미적인 감각을 좇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레마르크 원작 소설가의 본래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비유적으로 활용하면서 의미를 확대해 봅니다.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좋다, 싫다, 기쁘다,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시시각각 감정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과 사건들에 대해서 내 감정이 충실하다가 총에 맞는 일은 없을까요? 총에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용기 있는 것이고 바른 삶의 자세입니까?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민들은 대체 내 감정과 기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내 감정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마음속에서 반응하며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원을 활용해서 감정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회상하는 것인데 '내가 노예상태에 있었다가 해방된 사람이고 광야를 거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속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으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의 의미를 담아서 지속시킨 것이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1년 365일 동안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으므로,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내 감정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과 싸우고 감정을 억제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나를 통째로 십자가에 걸어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정에 대한 선민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로 받은 구원을 활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구름 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 가짐이 없고 하나님 가짐으로 인한 뿌듯함이 없게 되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건과 일과 대상들 앞에서 기분과 감정에 휩싸여 끌려갈 수밖에 없고 구원을 활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이 구원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해방된 것인데, 이 세상 가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상태가 바로 노예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반드시 세상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구한말에 영문 월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미국인 헐버트가 영문 월간지를 펴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식민지화 되어 가는 조선을 바라보면서 "조선멸망"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조선인은 화가 나면 정신을 잃을 정도다. 자기 목숨 같은 것은 어찌 되어도 좋다는 상태로 동물처럼 변한다. 입에 거품을 물고 마치 짐승 같은 얼굴이 된다. 어릴 때부터 자기 기분을 제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듯하다. 아이들도 어른을 본받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미친 듯이 광기를 벌이고..."라고 묘사를 했는데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헐버트에게는 조선민족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면 한 번 헐버트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선민족만 그런 가요? 화가 나면 입에 거품 물고 동물처럼 변하는 것은 조선민족만의 문젭니까? 영국사람, 미국사람, 프랑스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건 동물 아니고 광기 아니고 뭐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분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참 선민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 아무 연관성 없이 생활 속의 규범들을 나열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관통되는데 선민이라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말은 첫 번째 "태형"에 대한 얘기로 나옵니다. '태형'은 우리나라 식으로 곤장을 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이 확인되면 태형을 가하는데 '사십대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숫자상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십대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랍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몇 대를 때렸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게 되므로 39대로 정했습니다. "사십에 하나 감한 매"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39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39대로 정한 다른 이론은 옛날에는 태형의 도구가 나무 막대기이었다가 발전하면서 세 가닥 채찍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가닥 채찍으로 끝에 갈고리 같은 것을 달아서 아주 고통이 심하게 주어집니다. 한 번 치면 줄이 세 가닥이므로 세 번을 치는 것이지요. 14번을 치면 42대가 되잖아요. 40대가 넘는 것을 피하려면 13번을 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9대가 되는 것인데 하여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태형에서 "사십대를 넘게 치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김이 된다."고 합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인데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십대를 치는 이유는 얻어맞고 있는 범죄자의 범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공분(公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분(義憤)이 생겨서 분하다는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범죄를 다스리지 말고, 법 감정보다 법 정신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법 정신'은 이 사람을 죽이고 경멸하고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능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태형을 가하는 것입니다. 범죄 없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태형인데, 나 자신이 공분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인면수심이라고 공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올바른 유대교에 대한 공분 때문에 무수히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공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른 일을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공분, 의분이 선민에게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분과 의분에 마음이 휩싸여 가면서 행동하면 안 되고 마음이 구름 위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

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공분과 의분을 따라서 그대로 표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정화 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공분할 수 있고 의분이 분기충천할 수 있는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십자가 붙잡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땅을 떠나 구름 위 하나님아버지께로 갑니다. 마음이 아버지를 갖습니다. 아버지를 가지면서 평강을 누리게 될 때,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갖게 되는 의분이 있으시다면 이심전심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도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을 낼 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반응하면서 분을 내는 것은 절대 선민이 아니고 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먼저 그 상황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임합니다. 그 범죄 앞에서도 인면수심 앞에서도 마음이 하나님으로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평강의 단계가 지나면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됨으로써 우리의 감정은 발동돼야 합니다.
본장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모든 얘기들이 우리의 감정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내 눈 앞에서 감정을 유발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은 뒤에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의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어서 감정이 나타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 단계는 마음의 평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감정의 움직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구름 위 하늘로 올라가서 평강을 찾은 뒤라야 분을 내던 어떤 감정을 나타내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이심전심으로 옮겨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곡식을 떨기 위해서 곡식 떠는 기구를 메고 곡식 위로 걸어 다닙니다. 이때 소가 자연스럽게 낟알을 먹을 수가 있는데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에게 망을 씌우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못 보는 것입니까? 소도 먹어야 사는데 그 하찮은 짐승으로 짐승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곡식에 대한 아까운 감정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른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존재의 필요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다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선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10절에 나오는 “계대결혼”이라는 것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계대결혼은 당위적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신을 벗기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형수와 결혼하면 형의 소유를 동생이 갖는 것인데 소유권 없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형수와의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 참 요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결혼을 형수 아니라 뭐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것도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여자와 억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제우애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요즘의 상식으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규례가 뜻하는 아주 깊고 오묘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기해 볼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삼촌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보게 되는데 레아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레아는 흐리하고 라헬은 삼박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라헬을 택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므로 첫째 아들이 레아에게서 태어나고 레아가 첫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헬이 죽었을 때 막벨라 동굴에서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에다 묻고, 레아는 조상들의 장지에 묻고 자기가 죽을 때 레아 옆에 장사를 지내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계대결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수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감정에 충실한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권리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죽은 것이 결과적으로 깊이 보면 누구의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일찍 죽게 된 형과 결혼하게 된 이 여자가 형수가 된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대결혼의 규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요? 내 마음에 이 여자가 좋지 않아요. 결혼하고 싶지 않고 평생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그러면 선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 여자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나도록 마음을 control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여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나 자체가 구약의 경우에는 상번제를 통해서 죽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마음에 하나님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여자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가진 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진 다음에 상황을 다시 보니 형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형수가 형하고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수가 과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대결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선민이 거룩한 백성이고 구분된 백성입니다. 구분된다고 결혼을 안 합니까? 부부관계를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와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마음으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예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기분을 따라서 살았던 마지막 결산이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은 길에 묻고, 그리고 나는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레아는 조상의 무덤에 묻힙니다. 야곱의 시체를 애굽 땅에서부터 막벨라 동굴까지 옮기는데 라헬이 죽은 위치가 애굽에 비하면 동굴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얼마든지 마음껏 표현하고 이룰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난에 찌든 북한 사람들이 저주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병들어 있는 상태 힘든 상황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도 힘듭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아서 늘 밑바닥만 도는 상태 정말 못 견디게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상태는 돈이 한없이 많고 권력이 한없이 많고 내가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저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1차 대전의 여파로 독일이 실업과 굶주림에 허덕일 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히틀러를 거의 메시아 수준으로 격상시켜 숭배하게 되고, 권세가 주어진 한 사람에게서 나온 좋아함의 표현이 나라를 광기어린 집단으로 변하게 하고, 자기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온 유럽과 세계를 요동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나도 히틀러와 다를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게 권세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반드시 내 속에서 나를 멸망시키고 가정을 멸망시키고 내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몬스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감정에 충실하지도 말고 억제하지도 말고 감정이 일어나는 내가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주님의 동선 따라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가진 증거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평강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감정이 활용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눈에 합당하면 나도 합당하게 여겨서 얻는 여자가 진짜 아내입니다. 내 눈에 예뻐서 얻는 아내는 3년 안에 30%이상이 이혼을 합니다. 내 눈에 조건이 좋아서 내 사위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어요. 결국 내 인생에 내가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이보다 위험한 것이 세상에 다시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싸워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이보다 힘든 고행의 삶이 다시없습니다. 복음은 고행도 아니고 감정에 충실한 위험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심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지 않은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구원을 활용해서 내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깊이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대단한 것 내 밖에서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시시각각 나타나는 내 감정으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된 상태에서 복지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